

여수 청년들 '청년마을' 서 꿈 키운다

시,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선정 2년간 3억... 문화복합공간 조성 "청년예술인 중심 인구 유입 기대"

여수시에 전남형 청년마을이 조성된다.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젊은 층 유입에 따른 마을 활성화가 기대된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2024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 청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민과 상생 협력해 청년 인구 유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2개소(여수시, 영광군)가 선정됐다.

선정된 청년단체 '팀제로백'은 청년 예술 기획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청년마을 '가온' 조성을



여수시 시전동에 전남형 청년마을 '가온'이 조성된다. 시민과 어린이들이 흥국상가청년사업단이 기획한 거리 공연을 즐기고 있다. 여수시 제공

위해 총사업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가온'은 순우리말로 '가운데, 중심'이라는 뜻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청년 예술인들이 꿈을 펼치는 마을, 청년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중심 마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청년마을이 조성될 시전동은 예술의 섬장도, 예술마루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청년 예술인들의 선호도가 높고,

흥국 상가 상인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상가 내 유휴공간 제공, 낮은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마을은 흥국 상가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복합문화공간 구축 △한달살기 체험 프로그램 △예술활동 및 창작 창업 지원 △예술작품 판매를 통한 소득 창출 등 청년친화적 문화예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 인구 유입공간으로 조성된다.

여수시는 5월까지 전문가 현장 컨설팅, 사업 계획 보완, 청년마을 활동 공간 정비 등을 완료,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청년들의 여수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완 여수시청년일자리과장은 "여수에 1호 청년마을을 조성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가온 마을이 수많은 청년 예술인들을 품는 문화복합 공간이자 지역의 대표 명소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가 지난달 27~28일 이틀간 돌산을 일원에서 '돌산갓고을한마당, 2024년 갓섬 피크닉'을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갓섬피크닉'에 3000명 방문

소풍 콘셉트 시민주도 축제

여수시가 지난달 27~28일 이틀간 돌산읍 일원에서 개최한 '돌산갓고을한마당, 2024년 갓섬 피크닉'에 3000여 명이 방문하는 대성황을 이뤘다고 30일 밝혔다.

봄맞이 수확철을 맞아 돌산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민 주도형으로 기획된 이번 축제는 돌산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 꾸며졌다.

소풍을 콘셉트로 갓섬도시락, 갓을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 생갓·갓가공품의 판매장 운영 등 '돌산갓'이 지역 특산품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축제의 본보기가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 돌산갓고을센터 잔디밭 등 재활용 현수막을 이용한 그늘막, 페페트병 갓꽃 장식을 설치한 갓섬피크닉, 종이 용기를 이용한 갓섬도시락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축제장으로 꾸며졌다.

행사 기간 시민과 관광객은 따뜻한 봄날 화창한 날씨 속에서 값싸고 맛있는 갓섬도시락을 즐기고, 방죽포 해수욕장과 솔밭·두문포항·덕개천 등 돌산의 숨겨진 명소를 탐방하며 큰 만족감을 보였다.

시는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 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행사장 곳곳에 배치해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힘썼다. 여수=이경기 기자

개별주택 가격 3만9027호 공시...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여수시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3만 9027호의 개별주택가격으로 가격 산정과 검증, 열람,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열람 기간 중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7만7537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열람은 오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시 누리집(www.yeosu.go.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 웹드라마 '하멜', 유튜브 채널에 공개

하멜 시사회도... 관객 호평



여수 관광SNS '힐링여수야'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웹드라마 '하멜'. 유튜브 캡처

여수시 아홉 번째 웹드라마 '하멜'이 30일 여수관광SNS '힐링여수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네덜란드 하멜 표류기에 기반한 웹드라마 '하멜'은 여행작가인 MZ세대인 주인공이 하멜의 탈출을 도와주고 조선시대와 현실을 오가며 일상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삶의 의미를 되찾는 이야기이다.

정식 공개에 앞서 시는 이날 오전 여수 문화홀에서 시민과, 언론인, SNS서포터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멜 시사회'를



30일 오전 여수문화홀에서 '하멜 시사회'가 열렸다. 여수시 제공

열었다.

이날 탄탄한 스토리와 출연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아름다운 여수관광자원을 활용한 아름다운 영상미는 50분 러닝타임 내내 관객들을 몰입시키며 큰 호평을 받았다.

여수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웹드라마를 제작·발표, 영상 속에 여수의 명소와 관광지를 담아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여수를 알리는데 힘써왔다.

이번 웹드라마에서도 여수 밤바다를 대표하는 포토 스팟인 하멜 등대와 아름다

운 여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화양면 봉화산과 선소, 일레븐 브릿지, 큰곶등대, 자산공원 등 숨겨진 명소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하멜'은 (주)딜라이브에서 운영하는 OTT플랫폼 '딜라이브 OTT v'에도 탑재된다.

이번 플랫폼 확장은 지자체 콘텐츠의 공공성 및 지역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딜라이브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거북선축제장서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

4-5일 14개 업체 85개 품목 판매



여수시가 오는 4-5일까지 이틀간 해양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거북선축제장에서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총 14개 업체가 참가해 시를 대표하는 농특산품을 선보이며,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우수 농특산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돌산갓김치, 돌산갓장아찌, 해풍썩 가공제품, 버섯가공제품, 방풍막걸리, 동백꽃차 등 85여 개 품목을 만나볼 수 있다.

또 갓김치, 막걸리, 꽃차 등 시식 행사

도 열려 관람객은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지역에서 생산된 햅쌀 등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판매행사는 거북선 축제 기간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제공으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매가 이뤄질 수 있는 특산물 판매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